# 우주

# 美우주군과 137억 달러 발사 계약 선정된 세 기업

우주 정의훈_ 02)368-6170_ uihoon0607@eugenefn.com

## SpaceX, ULA, Blue Origin

4 월 4 일, 미국 우주군은 NSSL(National Security Space Launch) 프로그램의 Phase 3 Lane 2 에 SpaceX, United Launch Alliance(ULA), Blue Origin 등 3 곳의 기업을 선정했으며, 이들과 총 137 억 달러(약 20 조원) 규모의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. SpaceX 는 59 억달러에 총 28 개 임무를, ULA 는 54 억달러에 19 개 임무, Blue Origin 은 24 억달러에 7 개 임무를 맡게 됐다.

NSSL 은 미국 국가 안보용 위성(정보 수집, 미사일 경보, 통신 등)을 발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Phase 1(종료)과 Phase 2(후반부 진행 중)를 거쳐 현재 Phase 3 준비 과정에 있다. 지난 Phase 1,2 에서는 SpaceX 와 ULA 만이 선정되며 두 회사가 프로그램 예산을 양분했지만, 3 단계에서는 경쟁을 강화하고 민간 우주 기업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두 트랙으로 진행된다. Lane 1 은 상대적으로 위험도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발사 임무를 담당하는 트랙으로 여러 민간기업들이 선정된다. 지금까지 선정된 기업으로는 SpaceX, ULA, Blue Origin, Stoke Space, Rocketlab 이 있다.

반면 Lane 2 은 임무의 중요도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임무를 담당하는 트랙인데, 이번에 SpaceX, ULA, Blue Origin 가 여기 선정된 것이다. 주목할 만한 점은 Phase 2 까지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ULA 를 SpaceX 가 밀어냈다는 것이다. SpaceX 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Falcon 9 과 Falcon Heavy 중심으로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, 실제로 프로그램 초반 대부분의 발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.

반면 ULA 는 오랜 기간 지연된 Vulcan Centaur 로켓 발사 인증을 지난 3 월에 획득해 상용 발사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며, Blue Origin 은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New Glenn 로켓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. 일론 머스크는 이를 두고 ULA 와 Blue Origin 이 할당된 발사 횟수를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.

미정부는 ULA 와 Blue Origin 등을 비롯한 미국 내 다양한 민간 발사 기업에도 예산을 할당하며 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나, 현재 SpaceX 의 로켓 기술력과 발사 시장 점유율을 감안하면 시장 지배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.

### 한주 간 주요 뉴스

Viasat, Telesat 의 Lightspeed LEO 네트워크망을 추가해 다중 궤도 서비스 강화

Viasat, 2027 년부터 Telesat 의 Lightspeed LEO 서비스 제공 예정

미 우주군, GPS 위성 발사 계약을 ULA 에서 스페이스 X 로 재배정

러시아와 중국, 스페이스 X 스타링크 겨냥한 우주 전자전 강화

아스트로스케일, 미 우주군 GEO 궤도 연료 보급 임무에 선정

유텔샛, 독일 자금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인터넷 제공

도표 1. ULA 의 Vulcan, Blue Origin 의 New Glenn, SpaceX 의 Falcon9

자료: 각 사, 유진투자증권

**Compliance Notice**

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
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
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
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
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
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

**투자기간 및 투자등급/투자의견 비율**

|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: 12 개월 (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) | | 당사 투자의견 비율(%) |
|---|---|---|
| · STRONG BUY(매수) |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50%이상 | 0% |
| · BUY(매수) |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+15%이상 ~ +50%미만 | 96% |
| · HOLD(중립) |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이상 ~ +15%미만 | 4% |
| · REDUCE(매도) |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-10%미만 | 0% |

(2025.03.31 기준)